환수룡 동방의 지배황 후우시

동방의 상제이자 뱀의 모습을 한 태양신 누와와 함깨 인류의 창조주로서 존재했으며 직접 부족한 인류를 일깨우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화하여 사냥의 이치를 가리키고 동방상제로 등극하였다

고구려벽화에서도 유명하고 용의 하반신을 가지거나 인면조신으로 표현 실제모습은 용과 새를 섞은 듯한 세븐스 덩어리의 신수로 태양을 투영하고 팔궤의 힘을 열어 비드소울을 증폭시킨다